

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

지난 10월 6~8일 3일간 WTO는 제네바에서 농업위원회(Committee on Agriculture, CoA) 특별회의를 개최, 8월 1일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 (framework)이 채택된 이후 큰 진전이 없었던 농업협상을 속개하여 주요 쟁점에 대한 기술적인 의견교환과 함께 향후 계획 등을 협의하였다. 앞으로 농업협상 특별회의는 11월 15~19일, 12월 13~17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최근의 WTO의 주요회의를 중심으로 최근 DDA 농업협상 논의동향을 살펴본다.

1. 9월 농업위원회 비공식회의 개최

지난 9월 24일 WTO는 농업협상의 향후 추진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농업위원회 비공식회의가 개최하였다. 2004년 8월 기본골격 합의안이 도출된 이후 협상에 큰 진전이 없던 가운데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로써,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팀 그로서(Tim Groser) 의장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논의할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였다.

비공식회의에서 팀 그로서 의장은 향후 2개월 간 기본 골격 합의안을 근거로 하여 기술적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자신은 협상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협상의 진전을 위해 회원국들의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 회의는 공식 및 비공식 성격의 회의로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기본골격 합의안에 기초한 기술적 논의는 국내보조, 수출경쟁, 시장접근 등 3대 쟁점사항의 특정 현안에 관해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국내보조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허용보조(green box)’의 명료화 및 재검토 문제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생계농 및 자원빈약농에 대한 보조(support for subsistence and resource-poor farmers)’와 무역왜곡조치인 ‘감축대상보조(amber box)’와 관련하여 개도국 지지의 면제조항을 정의하는 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수출경쟁과 관련 기술적 논의는 비레원칙(parallelism)의 개념을 주요 주제로 삼아 전개될 것이고, 주로 직접 수출보조, 수출신용, 수출보증, 식량원조, 국영무역관행 등이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다. 시장접근 분야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개도국을 위한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와 관련된 기술적 현안에 대해 재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번 9월 24일 농업위원회 정규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통보된 사안을 검토하는 등 일상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주목을 끈 내용은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이 제시한 탈지분유에 대한 미국의 식량원조에 관한 사항이었다. 또한 회원국들은 유럽연합의 확대에 대한 시사점, 특히 유럽연합의 신생 가맹국에 대한 특정 보조의 적용방법 등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

2. 10월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개최

지난 10월 6~8일에는 농업위원회 공식 및 비공식 특별회의가 개최되었다. 팀 그로서 의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월 이후 협상의 추진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10월 6일 개최된 비공식회의에서 회원국들은 2005년 12월에 개최될 차기 홍콩 각료회의까지 농업 부문의 세부원칙(modality) 수립을 목표로 논의를 해야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적인 기술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유럽연합은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와 비교역적 관심 사항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둔 반면,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는 마약성 작물로부터 전환된 열대성 품목 및 작물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메이카는 시장접근에 대한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에콰도르는 이런 특혜에 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코스타리카는 과거 시장접근에 대한 특혜로부터 얻은 이득이 시장접근에 대한 장벽으로부터 얻은 비용보다 훨씬 작았다고 역설했다.

브라질, 인도,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 그룹인 G-20은 협상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실질적인 문제가 선진국의 무역왜곡 보조임을 강조했다.

G-33 그룹에 속하는 인도네시아는 개도국에 대한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과 특별품목(Special Product, SP)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거나 관세를 감축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SP와 SSM이 개발 목적을 달성하도록 개도국에게 신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다수 대표단들은 비공식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협상 안전에 무엇이 포함될지에 상관없이 협상 주제를 미리 발표하여 회원국의 입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팀 그로서 의장은 대표단들이 향후 논의될 주제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협상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월 7일 비공식회의에서는 허용보조가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농산물 수출개도국인 케언스그룹은 허용보조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G-10을 대변하는 유럽연합과 스위스는 케언스그룹의 접근방식에 반대하면서, 허용보조의 한도에 관한 논의는 추후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국내보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지만, 보조의 본질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8일에는 6일~8일 간의 협상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무역 대표단들은 주로 8월 기본 골격 합의안 이후 협상을 촉구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에 중점을 두었다. 팀 그로서 의장은 현재의 협상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기술적 추가작업에 관한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지난 2003년에 제시된 하빈슨 초안이 협상의 기초로써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고, 향후 기술적 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선택권을 좁혀나가야 하며, 최종적인 선택을 위해서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8일 특별회의에서 G-20은 우선 일반 규정에 중점을 두고, 차후에 예외 조항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리셔스, 필리핀, 짐바브웨이 등은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Special and Different Treatment, S&D)는 일반 규정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팀 그로서 의장은 일부 S&D 문제는 일반 규정에 쉽게 포함될 수 있지만, 당분간 SSM과 같은 문제는 논리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사안임을 명시했다.

3. DDA 협상 가속화될 전망

지난 10월 20일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GC)는 차기 WTO

제6차 각료회의를 2005년 12월 13~18일 홍콩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슈파차이(Supachai Panitchpakdi) WTO 사무총장은 홍콩 각료회의가 개최되기까지 8월 결정된 기본 골격을 근거로 하여 지속적인 협상논의를 부탁한 바 있다.

이에 앞서 10월 12일 WTO는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 TNC)를 개최하여 DDA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무역활성화 협상그룹(Negotiating Group on Trade Facilitation)을 신설하는 등 협상 추진 체계를 정비하였다.

이런 WTO의 제반 움직임은 8월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DDA 협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고, 미국의 대선과 EU의 집행위원 교체 이후 협상이 가속화될 것에 대비한 것으로 향후 협상 일정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한국농촌경제연구원)